

한라포커스 신음하는 제주바다의 실태 <하>

하천 배수로 따라 토사·쓰레기 유입 가속

강우시 천미천 주변 토사 확산 범위 반경 2.5km
병문천 주변 아연 주의기준 상회... 어족자원 고갈

제주 전역을 감싸고 있는 하천과 소 하천 가운데 일부는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 등에 정비의 초점을 두면서 대형 배수로로 변했다. 집중호우시 마다 이 거대한 하천 배수로를 따라 육상에 있던 토사와 쓰레기 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천 주변 해역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쓰레기 등 퇴적물들이 쌓이고 있고 이 때문에 연안어장은 수생착화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수생착화식물이 사라지면서 하위생태계 파괴에 의한 어족자원 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월령·천미·병문천 주변 해역에서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오염 물질과 대량의 토사 유입으로 조간대의 육상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월령천 주변은 2017년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이 하천 주변 정점보다 하천 입구 정점에서 각각 최대 11배, 18배 높았다.

천미천 주변은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이 하천 주변 정점보다 하천 입구 정점에서 각각 최대 12배, 7.5배 높았고 2018년 조사에서는 최대 247배·109배 높게 나왔다. 하천 입구 정점에서는 비오기 전 보다 비 온 후 용존무기인이 61배 높았지만 용존무기질소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병문천 주변은 2018년 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부유물질이 하천 주변 정점보다 하천 입구 정점에서 각각 최대 26배, 86배 높았고 2018년에는 최대 1469배, 3440배, 677배 높았다. 하천 입구 정점에서는 비오기 전 보다 비 온 후 용존무기질소와 용존무기인, 부유물질은 각각 3.7배, 3.7배, 113배 높았다.

또 하천 주변 해역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병문천에서는 아연이 해양환경기준의 주의기준을 상회했다.

하천에 출현하는 저서동물의 서식밀도는 천미천 261ind./㎡, 병문천 81ind./㎡로 천미천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다. 강우 전·후 저서동물의 서식밀도를 비교한 결과 천미천에서는 강우 전 273ind./㎡, 강우 후 248 ind./㎡로 나왔고 병문천에서는 강우 전 94ind./㎡, 강우 후 68 ind./

㎡로 병문천과 천미천에서 모두 강우 전보다 강우 후 서식밀도가 감소했다. 강우 후 자갈보다는 모래의 구형비가 증가하고 있고 분급도도 세립해 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강우에 의한 하천 범람시 식물성 플랑크톤의 출현 종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군집의 변화는 먹이사슬의 가장 하층부가 바뀌는 것으로 이는 결국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종류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할 경우 물고기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도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는 “천미천 주변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더니 토사 확산 범위가 반경 2.5km까지 나왔다. 하천 정비로 인한 토사들이 거름망 없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화훼농가, 일본 수출길도 막혀 ‘설상가상’

졸업식 간소화 내수 급감에
日항공노선 중단까지 이중고
서귀포시, 꽃 나눠주기 진행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졸업식 간소화 등으로 화훼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이 이번엔 주요 소비처였던 일본 수출길까지 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강정·월령동 20여농가가 10.8ha에서 250만본의 백합과 심비디움을 재배해 매년 국내 출하와 일본에 수출해 왔다. 작년 백합은 생산된 230여만본 중 60여만본이, 심비디움은 14만여본 중 12만여본이 일본에 수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2·3월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며 화훼 수요가 급감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다가 올해 첫 수출을 위해 이달 초 수확한 백합 1만본이 지난 9일부터 일본 직항노선이 완전 끊기면서 제주공항에서 반송돼 농가 저장고에



서귀포시 소재 농가에서 재배한 화훼가 내수 부진에다 일본항공노선 중단으로 수출길도 막히면서 12일 서귀포시와 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서귀포시연합회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1400본의 백합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보관중으로, 조만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춘분절 연휴가 긴 3월에 꽃 수요가 많아 해마다 봄철에 백합 수출이 많이 이뤄져 왔다.

강정동에서 백합농사를 짓고 있는 김신일씨는 “1월에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이번에 도쿄 노선까지 중단되며 오리엔탈 품종의 백합 수출이 완전 끊긴데다 내수시장도 좋지 않아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작년 이맘때 한단(5분)에 8000~9000원이던 것이 최근

엔 6000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씨가 구입하는 백합 중구는 개당 가격이 550원이고, 하우스 가온비로 3.3㎡당 1만원정도가 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2일 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회장 안재홍), 여성농업인서귀포시연합회(회장 양옥매)와 함께 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꽃 나눔’ 행사를 갖고 백합 1400본을 민원인들에게 나눠줬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관리사각지대 가설건축물
서귀포시, 정비 TF 구성

숙보=준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분보 3월11일 3분)과 관련, 서귀포시가 ‘가설건축물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시는 정해진 기한 내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달 말까지 준치기간 연장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내 연장신고 안내,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 말 기준 준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허가 건이 376건, 신고 건이 711건 등 총 1190건이다.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 신청은 허가대상은 준치기간 만료일 14일 전, 신고대상은 7일 전까지 행정시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준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미래 선도하는 도민의 행복파트너



제주도개발공사는 12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위생용품 및 생필품으로 제작한 ‘희망구러미’ 400세트를 대구와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강희만기자

“글로벌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앞장”

<5> 사회공헌 사업

대구·제주 취약계층에
구호물품·도시락 전달
제주삼다수 21만병 지원
“코로나19 극복 도움 것”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12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대구와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구호 물품과 도시락을 지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위생용품 및 생필품으로 제작한 ‘희망구러미’ 400세트를 대구와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으며, 무료 급식 중단으로 최소한의 영양 공급마저 어려워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0여명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해 영양 지원을 도모했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제주삼다수 21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그룹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지난 2019년 9월 가입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운영의 정책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유엔산하의 자율기구로, 인권과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가지 원칙을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의 청정 수자원을 바탕으로 창출한 가치는 고스란히 도민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JPDC의 누적 당기순이익 5253억원 가운데 제주도 출자배당금 2010억원, 기부금 323억원 등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도민을 위해 쓰였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통해 힘을 보탠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삼무공원 일대 ‘썬테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주거지역에 안심마을 ‘삼무공원길’-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지역공동체(썬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썬테드’란 건축과 도시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디자인설계를 통해 최소화해 잠재적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가로등 개선, 벽화 등 공공예술작품 설치, 교통흐름의 안정화 유도, 조경 관리,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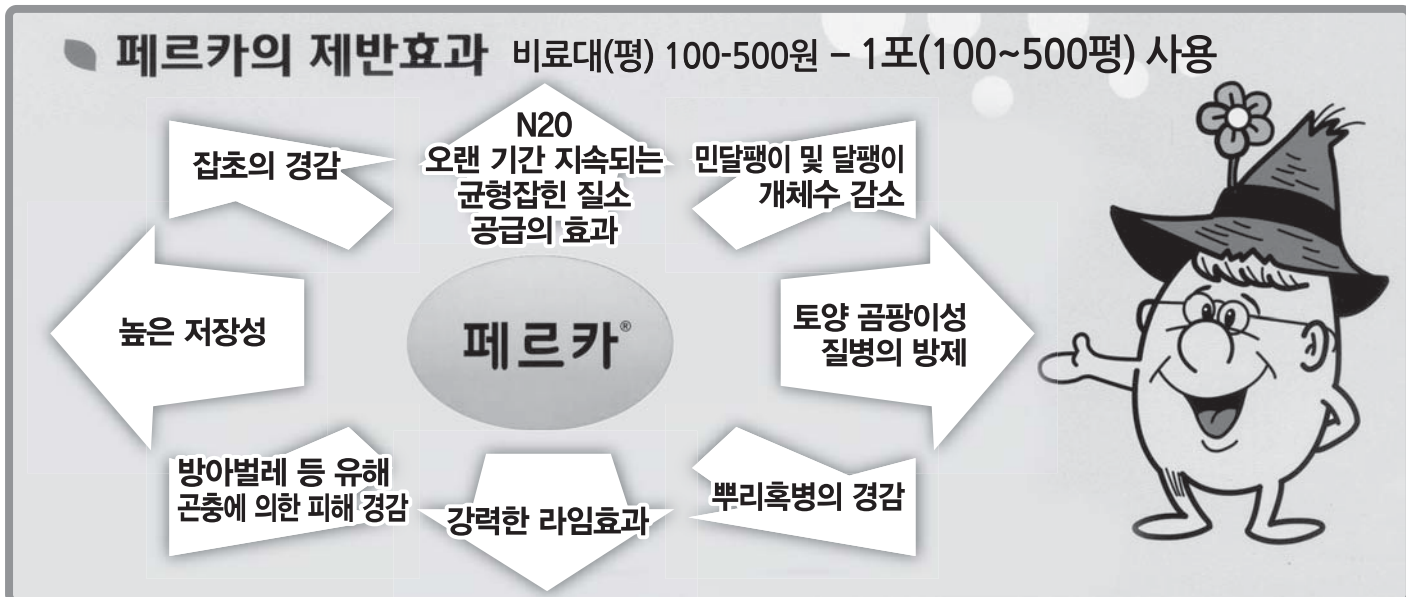
고대로그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연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